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

The Family Support and Policy Implications on Support Environment Changes

김유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가족부양 환경의 변화와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가족부양 유형 및 욕구는 다변화되고, 가족부양 및 돌봄 등 가족기능의 공백이 두드러짐에도 사회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사회는 전통적 가족주의에 근거하여 가족부양을 해결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으나, 핵가족과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변하고 가족과 사회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역할이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부담을 야기하므로 건강한 가족유지를 위해 균형있는 가족부양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균형적·지속가능한 가족부양을 위해 양성 평등적·합리적인 가족문화 정착과 함께 노부모의 경제자원을 강화한다. 다원화·전문화되는 부양욕구에 대응하여 공적부양시스템을 확충하고 가족고유 영역인 정서적 부양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결정 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및 후기사회 이행으로 개인주의화에 따른 독신가구의 증가, 이혼·사별로 인한 가족해체 증가, 가족분거로 인한 고령부부 증가 등 가족규모 축소와 세대의 단순화로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1인가구는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로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였으며[1], 조이혼율은 2000년 천명당 2.5건에서 2010년 2.3건으로 다소 감소하여 2014년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 자녀와 비동거하는 노인가구는 2014년 71.6%로 2/3를 상회하였고, 그중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신가구 비율은 2004년 26.6%와 24.6%에서 2014년 44.5%와 23.0%로 노인부부가구는 거의 2배 증가를 보였다[3]. 또한 혼인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 가족결속력 약화 및 이혼·재혼 증가 등으로 분거가족(기러기가족), 동거가족, 공동체 가족 및 이혼·재혼가족 등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구주의 고령화 및 여성화,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등 신사회 위험에 노출된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가구주의 중위연령은 2000년 44.5세에서 2010년 49.0세로 높아졌으며, 성별분포는 2000년 남성 81.5%, 여성 18.5%에서 2010년 각각 74.1%와 25.9%로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맞벌이 가족은 2000년 35.4%에서 2011년 43.6%, 2014년 4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4], 한부모 가족도 2000년 9.4%에서 2010년 12.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가족부양환경의 변화와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가족부양 유형 및 욕구는 다변화되고, 가족부양 및 돌봄 등 가족기능의 공백이 두드러짐에도 사회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관념상 가족주의 속에서 가족부양을 해결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5]. 현대사회로 오면서 핵가족과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변하고 가족이나 사회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역할이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족부양부담에 대한 사회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강한 가족유지를 위해 균형있는 가족부양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모색이 요구된다.

본고는 가족부양의 개념 및 유형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가족부양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및 원인을 살펴보는 한편,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자료[6]를 활용하여 부모부양 인식 및 태도, 부모부양 특성, 부양갈등 및 어려움 등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제시코자 한다.

1) 통계청(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서;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2) 통계청(2000). 인구동향조사; 통계청(2010). 인구동향조사; 통계청(2014). 인구동향조사.
3) 정경희 외(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12. 정경희 외(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01.
4) 관계부처 합동(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통계청(2011).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2014). 지역별 고용조사.
5) 김송애·조병은(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기혼여성의 시가와 친가에 대한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pp. 303~322.
6)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8.27~9.10일까지 전화조사로 실시되었고, 조사대상은 전국민 중 만 20세~64세 이하의 남녀임.

2. 가족부양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조작적 정의

부양은 봉양, 수발, 돌봄 등 다양한 용어들과 함께 사용된다[7]. 부양개념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으로 정창수[8]는 부양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동거 또는 비동거 형태로 정서적 지원, 필요한 자원 제공, 인간관계 형성, 일상생활 또는 이동시 도움,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움의 제공 등을 포함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의 부양은 보통 노인과 관련지어 함께 사용된다. 이외에도 노인과 관계된 부양개념으로 조추용[9]은 부양을 의존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고 있다. 노인은 심신기능의 쇠퇴로 인해 자유로운 환경통제와 스스로 생활을 의지하는 것이 곤란함으로 자연히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유아나 병자와 같이 전체 사회의 약자 범주에 포함되며 의존성이 많은 인구집단이다. 이러한 의존성을 부양으로 정의하였다. 다른 개념으로는 부양은 피부양자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모든 욕구 측면에서 개인의 사적인 자원과 부양체계 뿐 아니라 사회적 대처를 통해 충족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한편, 부양은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정의하기도 한다. Caplan(1976)은 부양은 정서적 지원과 필요한 자원을 개인에게 제공하고, 개인을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10]. 그리고 Horowitz & Shindelman(1982)도 부양을 부양제공자와 피부양자 사이의 전 생애를 통한 연속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부양을 양자 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관계를 맺는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Warren은 물리적 원조, 정서적지지, 신체적 고통을 보살펴 주는 일, 외로울 때 위로와 시중을 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부양으로 정의하였다[11].

지금까지 살펴본 부양개념을 바탕으로 본고에서 가족부양이란 도움이 필요한 부모에게 동거 또는 비동거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정서적, 신체적 및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코자 한다. 부양은 돌봄이나 지원 등과 동일한 의미로 간주한다. 여기서 경제적 지원에는 금전 및 물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정서적 지원은 피부양자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신체 및 도구적 행위에는 신체적 독립과 가사운영 및 생활에 필요한 청소·심부름·질병 시 부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 보고자 한다.

7) 일반적으로 부양은 경제적인 원조에 사용하고, 봉양이나 수발, 돌봄은 신체적 및 정서적인 원조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양영자(2009). 농촌노인부부의 삶에 나타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의 재구성. 한국사회복지학, 60(1), pp. 127-152.
8) 정창수(2009).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6.
9) 조추용(2004). 노인이 가족에게 기대하는 부양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pp. 71~99.
10) 서소용·김명자(1998). 며느리의 시부모부양에 따른 보상·부양의식·부양행동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pp. 81~107.
11) 이남순(2006). 현대 노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케어복지학, 2(3), pp. 172~193.

3. 가족부양의 환경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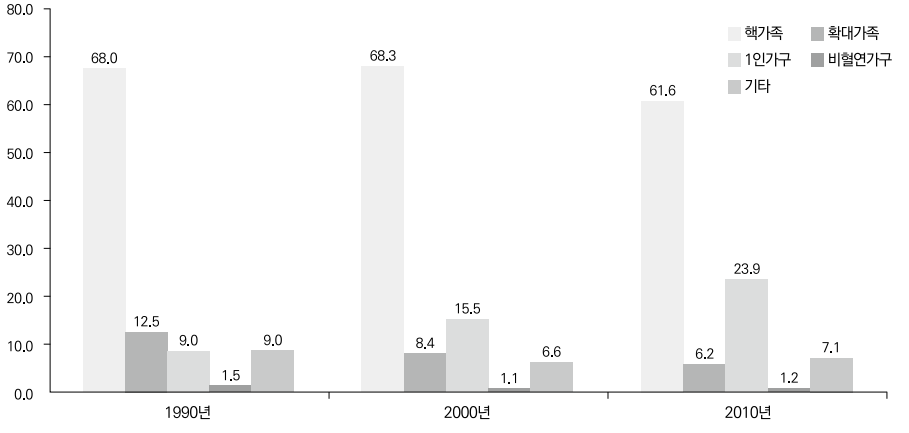
가. 가족구조변화와 가족해체 심화

최근 우리사회 가족구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이다. 가구유형의 변화는 1990년 핵가족형태가 68.0%로 과반수를 상회하는데 비해, 확대가족형태는 12.5%로 핵가족의 1/5 미만이었고, 1인가구와 비혈연가구는 각각 9.0%와 1.5%에 불과하였다. 20년 간 지속적인 소가족화로 가구유형은 변화를 보여서 2010년에 핵가족형태는 61.6%로 1990년에 비해 6.4%pt 감소하였고, 확대가족형태는 6.2%로 동 기간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1인가구는 23.9%로 약 2.7배 증가하였으며 비혈연가구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가족구조의 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소가족화는 개인주의화에 따른 가족원 분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증가, 만혼화 현상, 그리고 이혼율 증대 및 저출산으로 인한 1~2인 가구의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이해된다.

다른 하나는 가족가치관 및 가족결속력 약화로 인한 가족해체의 심화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가구주의 성별 및 혼인상태의 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의 성별분포는 1990년에는 남성 가구주가 84.3%, 여성가구주는 15.7%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5배 많다가, 2000년에는 각각 81.5%와 18.5%, 2010년에는 74.1%와 25.9%로 최근 20년 간 남성가구주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비해, 여성가구주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서 남녀 간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는 이혼·별거 및 사별로 인한 가족해체로 여성가구주의 증가

그림 1. 가구유형 변화추이(1990~2010)

(단위: %)



자료: 1) 통계청(1990, 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오는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1990년 유배우는 79.6%로 4/5 분포를 보였고, 사별과 이혼은 12.0%, 미혼은 8.3%로 나타났다[12]. 2000년에는 각각 75.0%, 14.8%와 10.2%, 2010년에는 66.6%와 19.0%, 10.2%로서[13] 20년 간 유배우 가구주는 점차 감소하고 이혼·사별 및 미혼 가구주의 분포가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와 같이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1~2인가구와 이혼·사별 등 해체가구의 증가는 가구의 돌봄기능 공백 및 부양부담 등에 노출된 가족부양 환경을 여실히 보여준다.

나. 부양가치관과 태도의 변화

우리나라 전통적인 부양관은 효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부양에 집중되었으나 가족주의 약화와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법 및 제도적인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가족부양은 감소하고 국가 및 사회에 의한 공적 부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부양 관에 잘 반영되어 있다.

부모부양관의 변화를 보면, 부모부양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에 대해 1998년에는 가족이 89.9%로 대다수였고, 스스로 해결과 사회 및 기타는 각각 8.1%와 2.0%로 미미하였다. 가족 중에서는 장남과 아들 모두가 29.4%로 1/3에 못 미쳤고, 딸을 포함한 모든 자녀는 15.0%에 불과하였으나, 능력있는 자녀라는 응답은 45.5%로 거의 과반수에 근접하였다.

2008년에는 부모부양의 책임자로 가족이 40.7%로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스스로 해결과 사회 및 기타는 각각 11.9%와 47.4%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노부모 부양을 사회화하려는 태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14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 중에서는 장남과 아들 모두가 9.7%로 감소한데 비해 아들·딸 모두는 24.3%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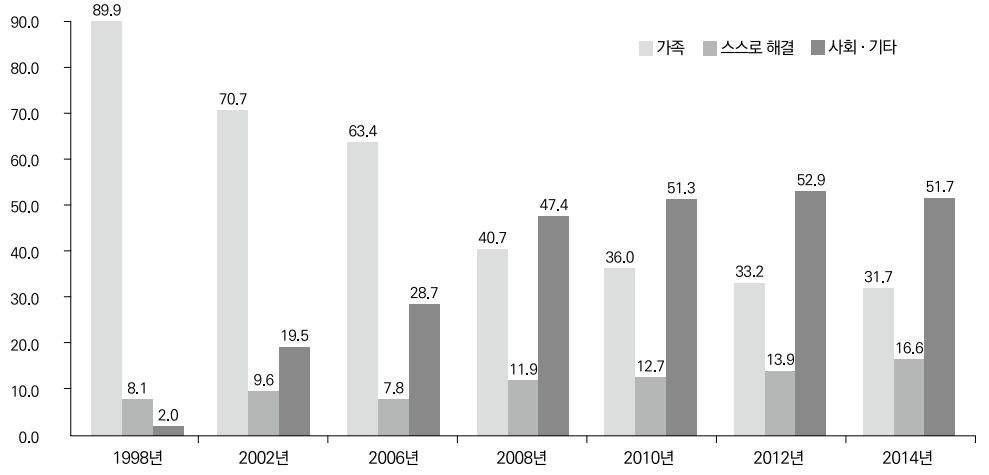
2014년에는 가족이 31.7%로 1998년에 비해 1/3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스스로 해결과 사회 및 기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8.3% 분포를 보여 2/3를 상회하였다. 가족 중에서는 모든 자녀가 24.1%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미미하여 장남 또는 아들중심의 가부장적 부양관이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통적인 장남 또는 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부양관에서 점차 노부모의 자기부양을 비롯하여 국가 및 사회 등 공적 부양에 대한 의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의 부모 부양책임 범위는 부모가 부양을 원할 때(31.9%)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모가 건강하지 않을 때(27.0%), 노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21.9%), 부모의 능력여부를 떠나서 무엇이든 책임져야 한다(16.8%) 순으로 많았다. 이는 성인자녀의 부모 부양관은 자발적인 부양관보다 수동적이고 조건적인 부양관이 높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12) 통계청(199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13) 통계청(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2. 부모부양 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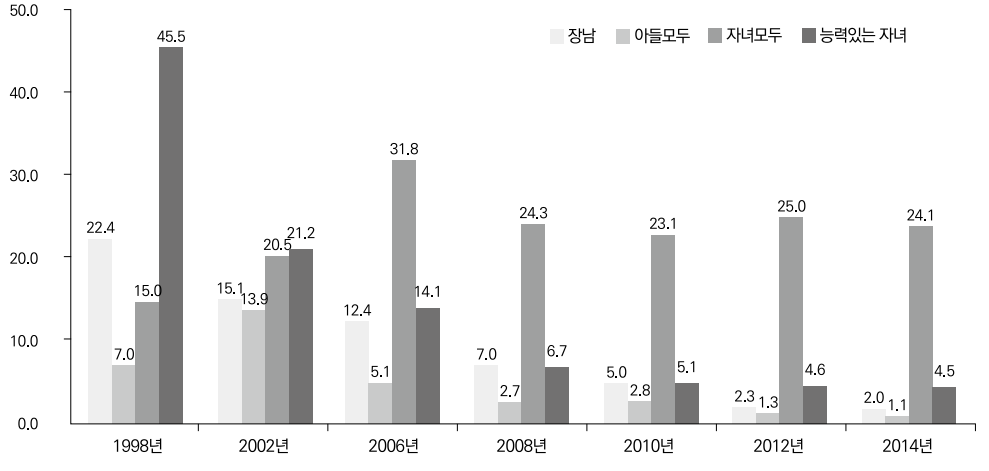
(단위: %)



주: 1) 분석대상은 1998~2010년에는 15세 이상인구, 2012-2014년은 13세 이상 인구임.
2) 부모부양 가치관에서 기타에는 스승, 선후배 포함.
자료: 통계청(1998~2014). 사회조사결과.

그림 3. 가족 중 부모부양 책임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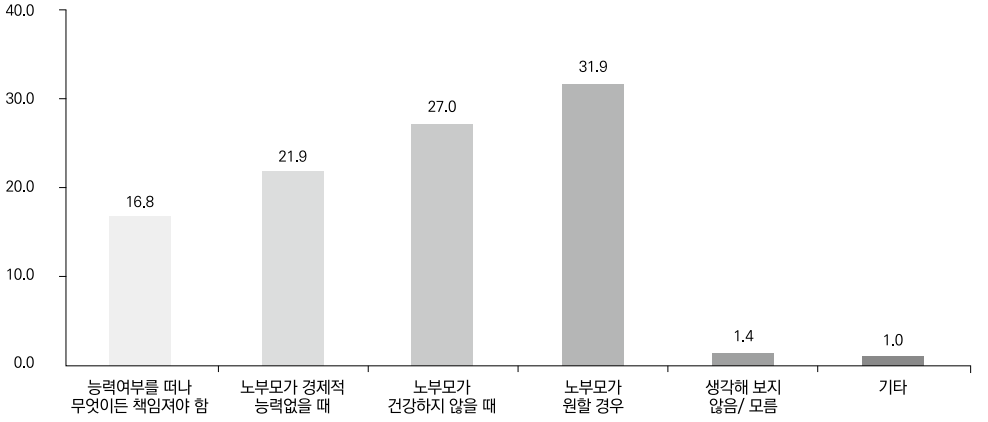


주: 분석대상은 1998~2010년에는 15세 이상인구, 2012-2014년은 13세 이상 인구임.
자료: 통계청(1998~2014). 사회조사결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부양관은 장남·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부양관이 상당히 약화되는데 비해 사회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가족부양의 사회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노인돌봄에 대한 부담은 점진적으로 과중되어 부모와 성인자녀 간에, 형제자매 간에 갈등의 증폭이 예상된다.

그림 4. 노부모부양 책임범위(2014)

(단위: %)



주: 일반국민 1,0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김유경 외(2014).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 부모-자녀 간 관계 변화

부모-자녀 간 친밀도는 가족부양 환경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자녀 간 친밀도를 부모와의 동거형태와 교류빈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와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보면 1998년 자녀와의 동거가 49.2%, 비동거는 50.8%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부모-자녀와의 동거가 점차 감소하고 비동거가 증가하여 2014년에는 자녀와의 동거가 28.4%, 비동거는 71.5%로 비동거가 동거보다 2.5배 많았는데, 이는 가족부양가치관을 잘 반영하고 있다.

부모와의 교류 중 연락빈도를 보면 1998년에는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한두 번 연락하는 것이 74.5%였고, 점차 증가하여 2011년 83.6%까지 상승하다가 2014년에는 72.9%로 감소하였다. 부모와의 만남도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한두 번이 1998년 40.8%에서 2011년 48.3%로 증가하다 2014년 37.7%로 감소하여 동일한 경향을 보

표 1. 부모와의 동거형태(1998~2014)

(단위: %, 명)

구분	자녀와 동거	자녀비동거	계(수)
1998	49.2	50.8	100.0(2,372)
2004	38.6	61.4	100.0(3,278)
2008	27.6	72.4	100.0(10,798)
2011	27.3	72.7	100.0(10,674)
2014	28.4	71.5	100.0(10,451)

자료: 1) 정경희 외(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정경희 외(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박명화 외(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4) 정경희 외(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정경희 외(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였다. 이는 최근에 올수록 부모와 자녀 간 친밀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초고령사회의 급속한 이행에 비해 부모-자녀 간 비동거 거주형태와 낮은 친밀도는 가족보호체계가 상당히 열악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높은 사회적 부담을 의미한다.

표 2. 부모와의 교류 변화(1998~2014)

(단위: %, 명)

구분	1998	2004	2008	2011	2014
부모와의 전화통화					
거의 매일	22.6	29.7	25.4	23.9	25.9
일주일 한두번	51.9	49.8	53.7	59.7	47.0
한달에 한두번	20.1	17.1	16.2	14.9	19.3
일년에 몇번	3.6	2.3	4.2	0.9	5.7
거의 하지 않음	1.8	1.2	0.6	0.7	2.0
부모와의 만남					
거의 매일	12.3	11.4	10.9	9.4	10.8
일주일 한두번	28.5	29.7	34.9	38.9	26.9
한달에 한두번	36.5	36.2	30.0	46.5	31.5
일년에 몇번	19.2	20.4	7.1	4.2	29.0
거의 하지 않음	3.5	2.3	1.0	1.0	1.8
계(수)	100.0(2,094)	100.0(2,892)	100.0(14,310)	100.0(10,153)	100.0(9,745)

자료: <표 1>과 동일

4. 가족부양 특성 및 정책욕구

가. 부양정도 및 피부양자 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5년에 실시한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1,000명 중에서 친부모 중 한명 이상 생존한 응답자는 791명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부모와 동거여부를 조사한 결과, 친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36.9%로 1/3에 불과하고, 나머지 2/3은 친부모와 비동거로 나타나서 부모가 자녀로부터 보호받는 환경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배우자부모 중 한명 이상 생존하는 응답자 474명을 대상으로 동거여부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7.0%로 상당히 미미하였다.

부모가 생존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 부모를 부양한 비율은 56.7%로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그중에서 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33.9%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부모는 15.8%로 친부모를 부양하는 비율의 절반에 못 미쳤고, 친부모와 배우자 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경우는 7.1%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연령이 높은 경우 부모를 부양하는 비율은 대체로 높았고, 형제자매 순위별로는 친부모 부양은 장남과 차남이 많은데 비해, 배우자 부모는 장녀와 차녀가 많은 편이었으나, 친부모 부양도 낮지 않은 비율을 보여서 기존 장남 또는 아들 중심의 부양관습이 상당히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부모 생존 및 동거여부

(단위: %, 명)

구분	부모생존			부모동거		
	부모생존	부모사망	계(수)	부모동거	부모비동거	계(수)
친부모	79.2	20.9	100.0(1,000)	36.9	63.1	100.0(791)
배우자부모	70.7	29.3	100.0(670)	7.0	93.0	100.0(474)

자료: 김유경 외(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모를 부양하는 응답자의 501명을 대상으로 피부양자인 부모의 연령분포를 보면, 먼저 부의 연령은 70대 이상이 64.4%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60대 25.3%, 50대는 10.3% 순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73.1세로 조사되었다. 모의 연령은 70대 이상이 68.1%, 60대 20.3%, 50대 11.7%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 연령은 73.7세로 모의 평균연령이 부보다 0.6세 많았다.

부모를 부양하는 응답자 501명을 대상으로 부양하는 부모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부의 건강상태는 (매우) 나쁘다는 비율이 18.6%, 보통 38.7%, (매우) 좋다는 42.7%로 응답자의 81.4%

표 4. 연령 및 형제·자매순위별 부양률 및 부양대상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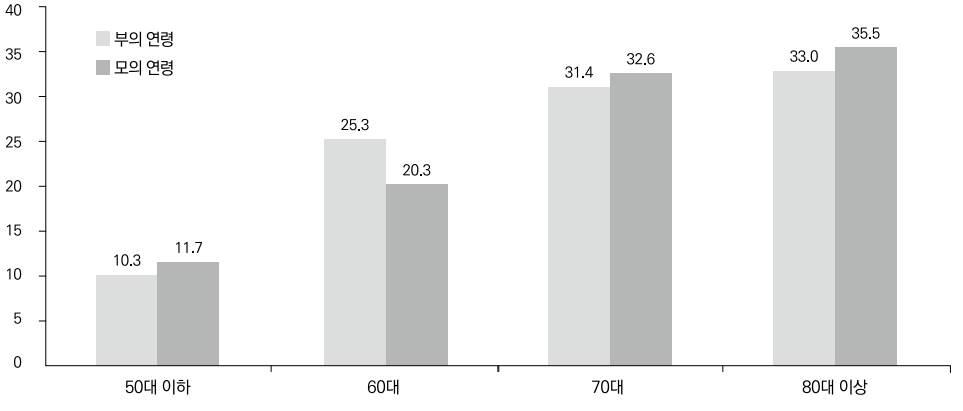
구분	부양하는 부모 없음	친부모	배우자 부모	친부모와 배우자 부모	계(수)
전체	43.3	33.9	15.8	7.1	100.0(882)
응답자 연령					
20~29세	81.7	14.9	2.0	1.4	100.0(191)
30~39세	47.2	36.6	8.8	7.4	100.0(224)
40~49세	28.9	39.0	21.9	10.1	100.0(241)
50~59세	20.7	42.4	26.8	10.0	100.0(188)
60~64세	29.0	39.1	31.9	-	100.0(38)
응답자 형제·자매 순위					
장남	44.0	45.1	4.4	6.5	100.0(261)
장녀	45.9	25.0	23.1	6.0	100.0(205)
차남 이하	43.1	38.9	11.4	6.6	100.0(198)
차녀 이하	40.0	24.4	26.4	9.1	100.0(219)

자료: 김유경 외(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 대다수의 경우 부의 건강상태가 보통 이상으로 좋았다. 이에 비해 모의 건강상태는 (매우) 나쁘다는 응답이 31.1%, 보통 39.2%, (매우) 좋다는 비율은 29.6%로 응답자의 68.8%는 모의 건

그림 5. 부양부모의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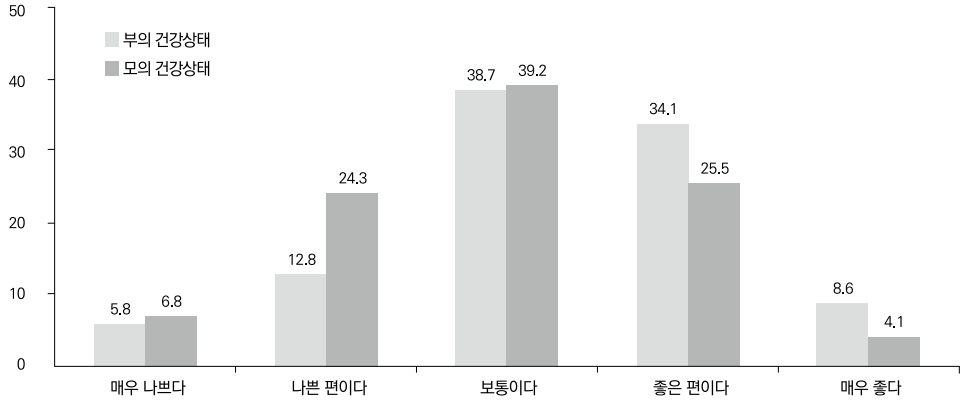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김유경 외(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6. 부양부모의 건강상태 분포

(단위: %)



자료: 김유경 외(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상태가 보통 이상으로 조사되어서 부에 비해 모의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부양기간 및 부양방식

부모를 부양하는 응답자 501명을 대상으로 부모를 부양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11년 이상이 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년 이하가 28.3%, 6~10년은 27.3% 순이었으며 평균 부양기간은 12.9년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연령별로 부양기간의 분포는 부양비율과 부모연령, 부모

표 5. 연령별 부모부양 기간

(단위: %, 명, 년)

구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8.3	27.3	13.1	15.0	16.3	100.0(501)	12.9
응답자의 연령							
20~29세	81.5	14.2	-	-	4.3	100.0(35)	4.3
30~39세	42.0	37.8	13.0	7.1	-	100.0(118)	7.9
40~49세	16.5	29.7	18.6	23.3	11.9	100.0(171)	13.5
50~59세	18.4	21.5	12.2	15.2	32.7	100.0(149)	17.0
60~64세	28.2	15.6	-	15.3	40.9	100.0(27)	19.8

자료: 김유경 외(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 건강상태 등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서 응답자가 고 연령층인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건강상태가 나쁜 고령의 부모를 오랜 기간 부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적·정신적·육체적으로 부양부담이 배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 연령층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 부양교환실태

경제적 부양에는 용돈, 생활비, 병원비, 부동산 구매 등의 현금지원과 여행 및 관광,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외식 및 음식물 등의 현물지원이 포함된다. 지난 1년간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부양유형을 보면, 현금지원이 92.5%, 현물지원은 86.0%로 두 가지 모두 다수가 지원하였으며, 현금이 현물보다 다소 많았다. 이에 비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부양은 현금지원이 23.3%, 현물지원이 38.9%로 현물이 현금보다 다소 많았고, 제공하는 비율도 부모부양이 자녀부양보다 현금은 4배, 현물은 2배 많았다.

표 6. 연령 및 형제자매 순위별 부양방식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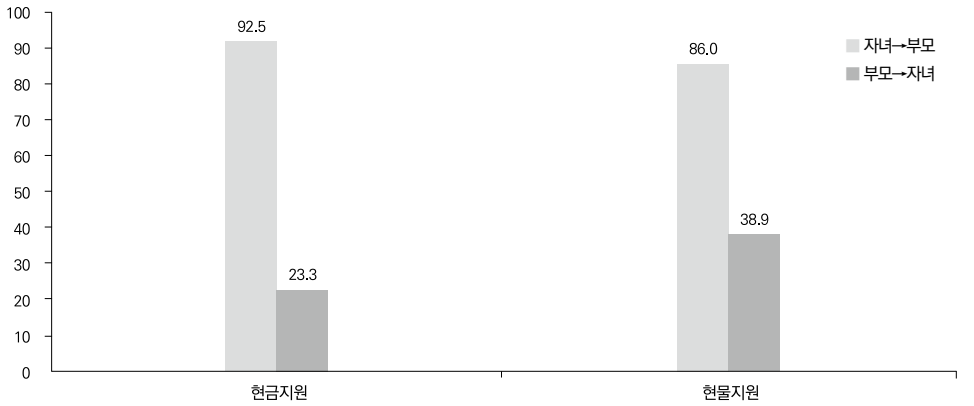
구분	동거+ 경제적 자립	동거+ 경제적 의존	별거+ 경제적 자립	별거+ 경제적 의존	기타	계(수)
전체	20.7	24.8	27.9	23.5	3.1	100.0(499)
응답자의 연령						
20~29세	75.0	7.5	17.5	-	-	100.0(35)
30~39세	34.7	20.2	29.5	15.6	-	100.0(118)
40~49세	13.4	25.4	34.4	23.3	3.5	100.0(171)
50~59세	7.0	31.7	22.8	33.7	4.8	100.0(148)
60~64세	10.3	26.2	20.8	34.5	8.2	100.0(26)
응답자의 형제·자매 순위						
장남	29.6	27.6	22.1	20.1	0.6	100.0(145)
장녀	20.0	16.6	30.6	26.6	6.2	100.0(111)
차남 이하	12.9	26.5	26.7	28.9	5.0	100.0(112)
차녀 이하	18.1	27.1	33.2	20.1	1.5	100.0(131)

자료: 김유경 외(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난 1년간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부양빈도는 정기적 지원이 63.9%, 비정기적 지원은 80.2%로 비정기적 지원이 정기적 지원보다 많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정기적 지원이 11.3%, 비정기적 지원은 42.5%로 자녀는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부양하는 편인데 비

그림 7. 부양유형 비교: 자녀→부모와 부모→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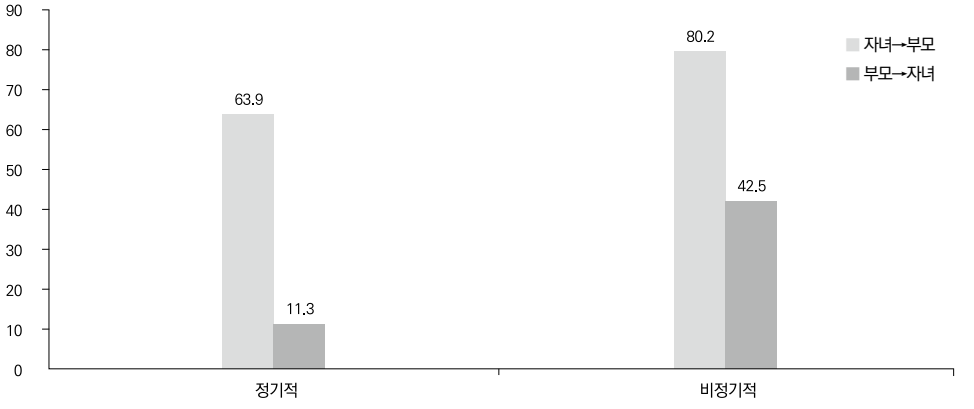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김유경 외(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8. 부양빈도 비교: 자녀→부모와 부모→자녀

(단위: %)



자료: 김유경 외(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 부모는 자녀에게 비정기적으로 부양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경제적 부양서비스에는 고민상담 등의 정서적 도움, 간병·수발·병원동행 등의 신체적·도구적 도움, 그리고 청소·식사준비·세탁 등의 일상생활 도움이 포함된다. 지난 1년간 자녀가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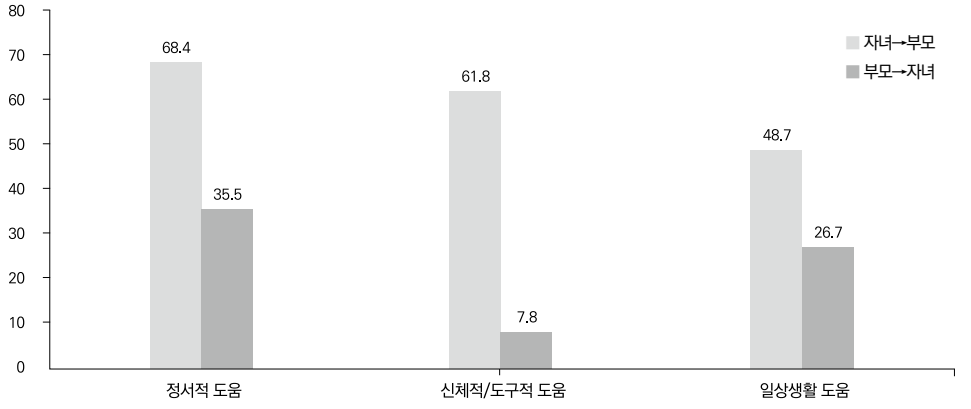
모에게 제공한 비경제적 부양은 정서적 부양이 68.4%, 신체적/도구적 부양은 61.8%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일상생활 부양은 48.7%로 다른 부양에 비해 다소 낮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부양은 정서적 부양이 35.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상생활 부양은 26.7%이었으며, 신체적/도구적 부양은 7.8%로 미미하였다. 대체로 자녀와 부모 모두 정서적 부양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자녀는 신체적/도구적 부양을, 부모는 일상생활 부양을 많이 주는 편이었다.

라. 부양비용 및 부담정도

부모를 부양하는 응답자 5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부모를 부양한 비용은 월평균 34.8

그림 9. 비경제적 부양 비교: 자녀→부모와 부모→자녀

(단위: %)



자료: 김유경 외(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월평균 4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60~64세는 월평균 15만원으로 가장 적어서 젊은 연령층에서 부양비용이 더 많았다. 형제자매 순위별로는 장남이 월평균 47.6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월평균 12.8만원이 더 많은데 비해, 차남 이하는 월평균 33.9만원, 장녀와 차녀 이하는 각각 월평균 28.7만원과 26.6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월평균 0.9~8.2만원까지 적었다. 또한 아들과 딸의 부양비용도 월평균 5~21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지난 1년간 부모 부양으로 지출한 비용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정도를 조사한 결과, 그런대로 감당할 만하다는 비율이 55.8%로 절반을 넘었고, 24.6%의 응답자인 1/4는 가계에 부담을 느꼈으

그림 10. 연령별 지난 1년간 월평균 부양비용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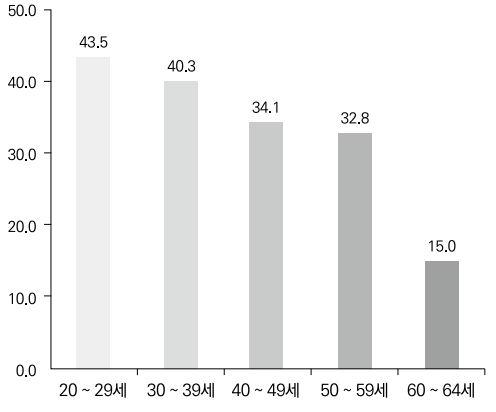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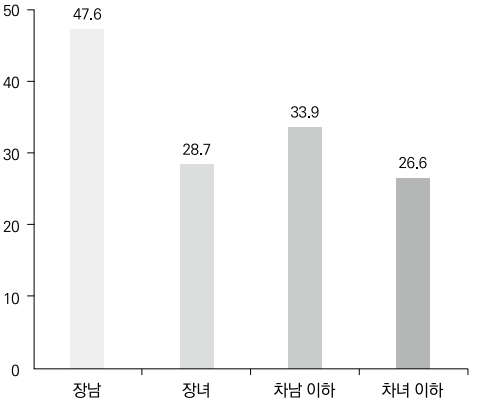


그림 11. 형제자매 순위별 지난 1년간 월평균 부양비용

(단위: 만원)



자료: 김유경 외(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며, 전혀 부담되지 않는 비율은 19.6%로 1/5에 해당되었다. 연령별로 가계부담정도는 60~64세가 4점 만점에 평균 2.4점으로 가계 부담이 가장 높았고, 20대는 1.8점으로 부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고 연령층에서 부양으로 경제 부담이 큰 것을 보여준다.

그림 12. 연령별 부양비용의 가계소득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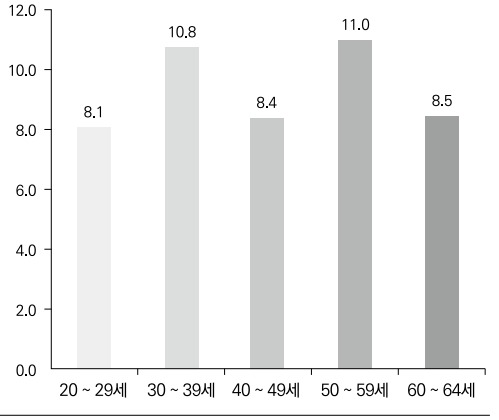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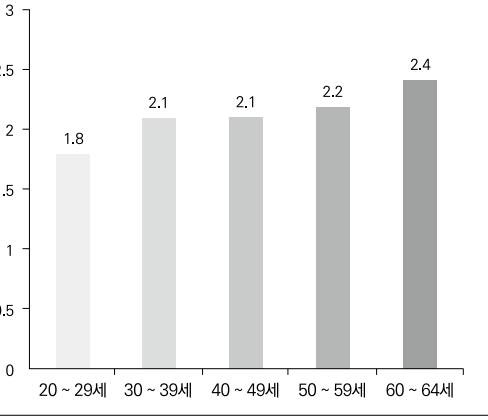


그림 13. 연령별 부양비용의 가계소득 부담정도

(단위: 점)



주: 가계소득 부담정도는 4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계부담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김유경 외(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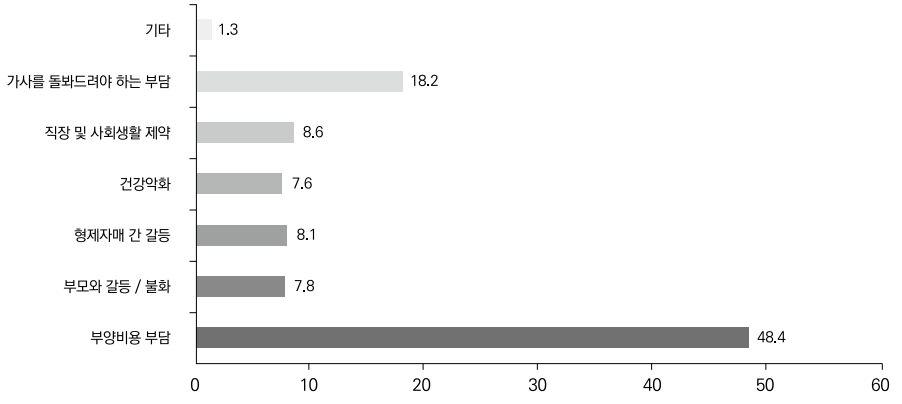
마. 부양상의 어려움

부모를 부양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부양상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부양비용 부담이 48.4%로 거의 과반수에 이르며, 다음으로 자주 찾아뵙고 가사를 돌봐드려야 하는 부담이 18.2% 많았으며, 이어서 직장 및 사회생활 제약, 형제자매 간 및 부모와의 갈등, 건강악화 순으로 많았다.

부모동거 여부별로 부양상의 어려움을 보면, 공통적으로 부양비용의 부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부양비용과 부모와의 갈등, 직장 및 사회생활 제약 등으로 조사되었고, 부모와 비동거인 경우는 부모를 찾아뵙고 가사를 돌봐드려야 하는 부담이 주요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부양상의 어려움

(단위: %)



자료: 김유경 외(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7. 부모동거 여부별 부양상의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부양비용(생활비, 의료비)의 부담	부양하는 부모와의 갈등과 불화	부양으로 인한 형제 자매 간 갈등	수발과 간병으로 인한 건강악화	부양으로 인한 직장 및 사회생활 제약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가사를 돌봐드려야 하는 부담	기타	계(수)
전체	48.4	7.8	8.1	7.6	8.6	18.2	1.3	100.0(445)
부모동거 여부								
동거	51.6	11.3	8.5	7.3	14.2	4.5	2.7	100.0(146)
비동거	46.8	6.1	7.9	7.7	5.9	24.9	0.6	100.0(300)

자료: 김유경 외(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나가며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및 후기사회로의 이행으로 개인주의화, 고령화에 따라 노인증가, 만혼현상, 이혼율 증대, 저출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족구조와 기능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가족가치관 약화, 가족규모 축소 및 세대구성 단순화, 그리고 가구주의 고령화 및 여성화와 함께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족부양 및 돌봄 등 가족기능의 공백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근거하여 가족부양을 해결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전통사회의 가족 내 피부양자는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사회적 존경과 지위를 가졌고 효사상을 기초로 한 가족부양이 전제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오면서 가족과 사회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역할이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또한 핵가족과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가족부양 환경이 약화되어 지금까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던 가족의 부양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층 인구의 증가와 부양의식 약화는 복지측면에서 가족과 사회의 분담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노년부양비(2000년 10%, 2015년 18%)[14]에서 나타나듯이 가족부양부담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초래한다.

최근 우리사회는 가족부양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부양분담이 향상되고 있으나 서구사회에 비해 낮은 실정으로 여성의 일-노인부양의 양립 사이에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더욱이 부양의식 약화 즉 부양가치관이 규범에서 교환관계로 이행됨에 따라 부양갈등은 가족관계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양성불평등적인 가족문화를 비롯하여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부양방식과도 관련이 높으므로 양성 평등적·합리적인 가족문화 정착과 함께 노부모의 경제자원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가족 내 부양역할의 수행을 가족구성원이 형평성 있게 공동 분담하는 문화와 규범을 정립하고, 가족부양 부담 경감 측면에서 가족부양에 대한 경제적 보상방안 도입을 모색하는 한편, 가족의 차별적 욕구를 반영한 노인돌봄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족부양 제공자를 위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원망 확충과 함께 제도적으로 부양휴가제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성질환의 경우 만성적이며 기한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가족부양휴가제도의 기한과 부양형태를 다양화하여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노인이 되면서 타인과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이 저하되므로 교환관계가 불균형적으로 되고 의존적으로 되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모-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자원을 가진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불균형과 의존적 관계성이 달라진다[15]. 노부모의 자원 강화를 위해 제도적으로는 노인의 소득보

14) 통계청(2001). 국제통계연감. p. 54; 통계청(2014). 국제통계연감. p. 60.
15) 이삼식 외(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사회통합위원회.

장과 고령층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동고용정책을 활성화하고,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들이 노년기로 진입하기 이전에 조기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장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노후준비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노후준비지원법' 시행(2015.12)에 따라 개인의 노후설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진단·상담·교육·연계·사후관리 등의 프로그램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연령대, 경제적 수준, 필요욕구 등 개인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표준화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다원화·전문화되는 부양욕구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부양형태는 가족, 지역공동체, 사회 및 국가 등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다양한 부양 주체가 상호 간 공조해야 하는 부양주체의 다원화가 요구된다. 특히 가족다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가족부양의 공사 간 분담방향은 정서적 부양은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하되 경제적 부양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가족욕구와 경제력에 따라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공적부양시스템을 확충하고 가족 공유 부양 영역인 정서적 부양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 접근은 실증적 부양실태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부양형태, 부양비용 및 부담, 어려움 등은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나므로 수요자가 차별적으로 서비스공급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